

파리 기메박물관서 함께 전시회 여는 아버지와 딸

파리 에펠탑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사오공 인근의 국립 기메동양미술박물관(이하 기메박물관)은 유럽에서 가장 큰 동양미술관으로 꼽힌다. 리옹 출신 실업가이자 동양미술 애호가였던 에밀 기메가 1878년 리옹에 문을 연 기메박물관은 10년 뒤 현재의 위치에 재오픈했고 1945년 루브르박물관 소장품이 더해지면서 풍부한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다.

전 세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기메박물관에서 광주 출신 부녀(父女)가 동시에 전시회를 개최, 눈길을 끈다. 수석 수집가인 아버지 민명철(72·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학인협회 회장)과 민정연 작가(41)다. 아버지 민씨는 수석전 '선비의 돌(Pierres de lettres)'을, 딸 정연씨는 현대미술전 'Carte Blanche'를 지난 6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개최한다. 특히 전시 후 수석 작품은 기증 과정을 거쳐 박물관에 상설전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부녀전의 출발은 민정연 작가다.

광주출신 민명철 수석수집가·민정연 서양화가

수석 28점 전시·'화해' 주제 설치 작업 선보여

내년 2월17일까지 개최...수석은 기증후 상설 전시

광주예술고와 홍익대 회화과 출신으로 2006년 파리국립고등예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파리에 정착한 민 작가는 2004년 주불 한국문화원 우수 청년작가에 선정돼 첫 개인전을 연 이후 2012년 프랑스 생테티엔 메트로폴 현대 미술관 우수작가상을 수상하고 2017년 국립 모스크바 아시아미술관 개인전을 여는 등 2004년부터 뉴욕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이다.

이번 전시회는 기메박물관이 2015년부터 매년 아시아 현대 작가 2명을 선정, 전시를 지원하는 현대미술 프로젝트 'Carte Blanche'에 2017년 선정된 후 2년간 준비를 거쳐 열게 됐다. 한국작가로는 이배, 김중하 작가에 이어 세번째다. 민작가는 이번 전시 '직조(Tissage)'

에서 '화해(Reconciliation)'를 주제로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겨울, 평면 드로잉, 구리 튜브 등 서로 다른 물질들이 한 공간에서 각각의 특성을 잃지 않고 서로 직조하듯이 어우러진 작품을 통해 개인이나 국가가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냈다.

민 작가는 "2차원의 드로잉과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물질을, 관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또 다른 '직조'를 만들어가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언론의 관심을 모아 6일에는 40여명 현지 기자가 참여한 프레스 오픈 행사와 최종론 프랑스 한국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VIP 오찬이 열렸으며 민 작가의 전시를 소개한 프랑스 미술잡지 '보자르' 특별호가



기메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민명철·민정연 부녀.

발간되기도 했다.

수석전은 민 작가가 박물관 측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1973년 수석 수집 시작 후 1974년 영광군 난월도 탐사여행 중 오석을 발견, 산지를 소개하기도 한 민씨는 이번 전시에 200여점의 소장품 중 산수경석, 문양석 등 모두 28점을 선보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수석 수집하는 것을 봤어요. 외부에 있는 자연을 실내로 끌어들이 안에 있으면서도 밖의 산수를 상상하는 경이로움은 저의 최근 작품에 영향을 줬습니다. 관장님께 수석의 역사, 동양에서의 예술적 가치 등을 설명하고 수석

전을 제안했죠. 수석은 유럽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별로 없어 이번 전시와 기증이 수석의 역사와 미를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판단에 흔쾌히 초청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전시를 열게 돼 영광입니다."

이번 전시작들은 심사를 거쳐 기증이 확정됐으며 전시 후 한국관의 '선비의 방'에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프랑스인과 결혼해 7살 아들을 두고 있는 민작가는 내년에는 서울 공근해갤러리와 파리 마리아론 드갤러리에서, 2021년에는 파리 주불한국문화원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민정연 작가의 작품 '직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마이스' 행사하기 좋은 장소로 선정

관광산업 핵심·지역경제 견인 '코리아 유니크베뉴' 장소 뽑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사진)이 마이스(MICE) 행사하기 좋은 장소로 선정됐다.

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관광산업의 핵심 요인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축매다. 21세기 국가 간, 지역 간 관광·회의 산업 유치전 이 가열되고 국가 간 문화 예술을 토대로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ACC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발표된 '2019-2020 코리아 유니크베뉴(Korea Unique Venue)' 30선에 아시아 문화전당이 뽑혔다"고 12일 밝혔다.

'코리아 유니크베뉴'란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하며 문화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말한다. 아울러 특정 도시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을 간직한 장소이자, 전시·공연 등 문화행사가 가능한 문화 시설을 의미한다.

올해는 관광공사가 지난해 선정한 베뉴와 신규 베뉴 대상으로 활용 실적과 위치, 시설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CC를 비롯한 30곳을 새로운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했다.

올해 개관 4주년을 맞은 ACC는 마이스 유치 경쟁력 입증에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ACC는 그동안 한-아세안 특별장관회의(2019년),

국제전자에세움포지엄ISEA(2019년), ACC국제포지엄(2017-2016년), 제7차 아세안문화장관회의(2016년)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마이스 산업 발전을 선도해왔다. 앞으로도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전시, 공연, 교육 등 양질의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구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지가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아닌 부산에서 열리는 것은 특급호텔 부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가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해 MICE산업 공공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영·요금 단일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안 개정

전남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도내 요금을 전국 최초로 단일화하고, 요금체계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13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 등 10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여수시 등 12개 시·군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번 장애인콜택시 요금단일화는 전국 최초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운영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2개 시·군에서 요금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것을 기본요금 2km당 500원, 추가요금 1km당 100원으로 하되, 관내는 시내버스 및 근대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2배로 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2020년 상반기 전면 시행 예정이다.

또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운영시간

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바꾼다.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전남도는 24시간 운영 등에 따라 가중되는 시·군의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3억1300만 원(대당 250만원)의 도비를 지원했다. 2020년에는 복원기금에서 5억6200만 원(대당 37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발 서울서 집회

공익형 직불제 등 대책마련 촉구

농민단체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단체 등 1만여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

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미국이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혜택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지난달 25일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해 향후 관세 감축 폭 확대 및 농업 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

장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농민들은 "WTO 개도국 포기"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쥔 등의 퍼포먼스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2020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지를 활용한 효과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19. 11. 11.(월) ~ 11. 25.(월)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 11. 11.(월) ~ 11. 25.(월)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일시	2019. 12. 4.(수) 10: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19. 12. 20.(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공학과/지역발전정책공학과/신원정보공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품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목포시 외곽(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단촌주택 구매 광주역 부근 중동동 땅 139㎡ 1억5백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용을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북구 두암동 버스도로점 2층 주거지 950㎡ 건물 신축 19억
- 남구 월산동 땅 127㎡ 2층 주택 118㎡ 1층 임대 7천 2층 주인거주 1억6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곡성군 옥곡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음 1억9천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2층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목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1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물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동탄면 영산강점 48900㎡ 편선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 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위조경용 8억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대지 652㎡ 낱방 생활편리 5억5천
- 담양군 신사읍 화실·작품활동 적합 10000㎡ 건물 67㎡ 5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건물

- 완안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용 적합 15억천
- 완안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등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 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뎀 땅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음 5억2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